

사노피, 세계 아토피피부염의 날 맞아

아토피피부염 인식개선 캠페인 '나의 흠:집' 팝업 전시 개최

- * 9 월 14 일부터 17 일까지, 서울 연남동에서 '가렵고 아픈 몸에 새겨진 집, 밥, 잠의 기록'을 주제로 참여형 전시 프로그램 진행
- * 생성형 AI 드로잉, 미디어아트, 인터랙티브 콘텐츠 등 아토피피부염 환자의 '집, 밥, 잠'과 관련된 다채로운 콘텐츠 마련
- *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 5 인이 직접 작가로 참여하며 더욱 의미 더해

대한민국 서울, 2023 년 9 월 11 일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사노피의 한국법인 (이하 사노피)이 2023 년 아토피피부염 인식개선 캠페인의 일환으로 '나의 흠:집 - 가쁜 몸에 새겨진 집, 밥, 잠의 기록' 팝업 전시를 개최한다. 이번 전시는 9 월 14 일 세계 아토피피부염의 날을 맞아 9 월 14 일부터 17 일까지 서울 연남동에서 진행된다.

'나의 흠:집' 팝업 전시는 아토피피부염 환자들의 집·밥·잠에 얽혀있는 양가적인 감정과 경험을 다양한 전시 콘텐츠로 구현해 많은 대중들을 대상으로 아토피피부염 질환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, 환자의 아픔에 함께 공감하는 기회를 만들고자 마련됐다. 2023 년 아토피피부염 인식개선 캠페인 '나의 흠:집'은 사노피와 아토피피부염 환자 단체 중증아토피연합회가 함께한다.

사노피는 '나의 흠:집' 팝업 전시에서 각 공간별로 다양한 전시 콘텐츠를 마련했다. 환자들이 직접 제작한 생성형 AI 드로잉 아트를 포함, 가렵고 아픈 고통 속 잠 못 드는 밤을 시·청각적으로 형상화한 몰입형 미디어 아트 전시 공간을 선보일 예정이다. 또한, 일상적인 식사마저도 두려움과 고립의 연속인 아토피 환자의 심정에 공감해 볼 수 있는 인터랙티브 아트를 통해 아토피피부염에 대한 편견을 개선하고 공감의 장을 이끌어내고자 한다.

특히, '나의 흠:집' 전시에는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 5 인이 작가로 함께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. 래퍼 씨클, 유튜버 정원희를 포함해 중증 아토피피부염을 앓고 있는 5 명의 환자들은 아토피피부염 환자로서의 '고통'과 '희망'을 주제로 직접 생성형 AI 드로잉 아트를 제작했다. 환자들이 참여한 생성형 AI 드로잉 아트 총 10 점은 '나의 흠:집' 전시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, 전시 현장에서는 제작 과정이 담긴 메이킹영상이 함께 공개된다.

이외에도 아토피피부염 이미지를 활용한 포토 모자이크 아트, 관람객들이 자신을 수식하는 형용사를 찾아보고 함께 완성해 보는 참여형 아트 월, 2019 년부터 이어져 온 아토피피부염 인식개선 캠페인의 히스토리를 따라가보는 미디어존 등 다채로운 전시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.

이번 전시는 9 월 14 일부터 17 일까지 연남동에 위치한 '카페스콘'에서 진행되며, 전시를 보다 재미있고 풍성하게 즐길 수 있도록 스탬프 투어 이벤트를 진행한다. 스탬프 투어를 완성하면 '나의 흠:집'에서만 만날

수 있는 포스터 카드, 타투 스티커 등 특별 굿즈세트가 제공된다. 또한 전시 후기를 사진과 함께 SNS에 업로드하면 '나의 흠:집' 특별 프레임이 담긴 포토 카드도 즉석에서 인쇄할 수 있다.

박희경 사장

사노피-아벤티스 코리아, 스페셜티케어 사업부 대표

"아토피피부염은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질환이기도 하지만, 또 많은 오해가 있는 질환이기도 하다. 아토피피부염은 단순 피부질환이 아닌 면역질환이며, 특히 중증 아토피피부염은 극심한 가려움과 통증으로 인해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다"며, "이번 '나의 흠:집' 팝업 전시를 통해 아토피피부염에 대한 인식제고 및 환자들에 대한 이해의 시선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"고 말했다.

한편, 사노피는 매년 아토피피부염 인식개선 및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. 2022년에는 '나는 잠 못 드는 사람입니다' 캠페인을 통해 '잠'이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일반 대중과 공감대를 형성했으며, 2021년 '나는 속가픈 사람입니다', 2020년 '나는 가쁜(가렵다+아프다) 사람입니다' 캠페인으로 아토피피부염 환자들이 겪고 있는 신체적, 정신적 고통을 알렸다. 2019년에는 동기 부여 콘텐츠 플랫폼 '열정에 기름붓기'와 함께 '나는 이상한 사람입니다' 캠페인을 진행해 성인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의 어려움을 알리는 데 기여하기도 했다.

###

중등도-중증 아토피피부염(Moderate-to-Severe Atopic Dermatitis)에 대하여

중등도-중증 아토피피부염은 만성적인 전신 면역 질환으로 발진, 심각한 가려움증, 피부 건조, 피부 갈라짐, 붉어짐(발적), 부스럼과 딱지 및 진물 등이 동반될 수 있다. 아토피피부염의 발생에는 유전적, 환경적, 면역 체계 이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.

아토피피부염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겪는 신체적 고통은 정신 건강 및 삶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. 성인 아토피피부염 환자의 경우 3명 중 1명은 불안 및 우울증 같은 정신 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소아, 청소년 아토피피부염 환자의 피부과-삶의 질 지수에 따르면 환자 중 38%는 아토피피부염이 삶의 질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답했으며, 34%는 매우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응답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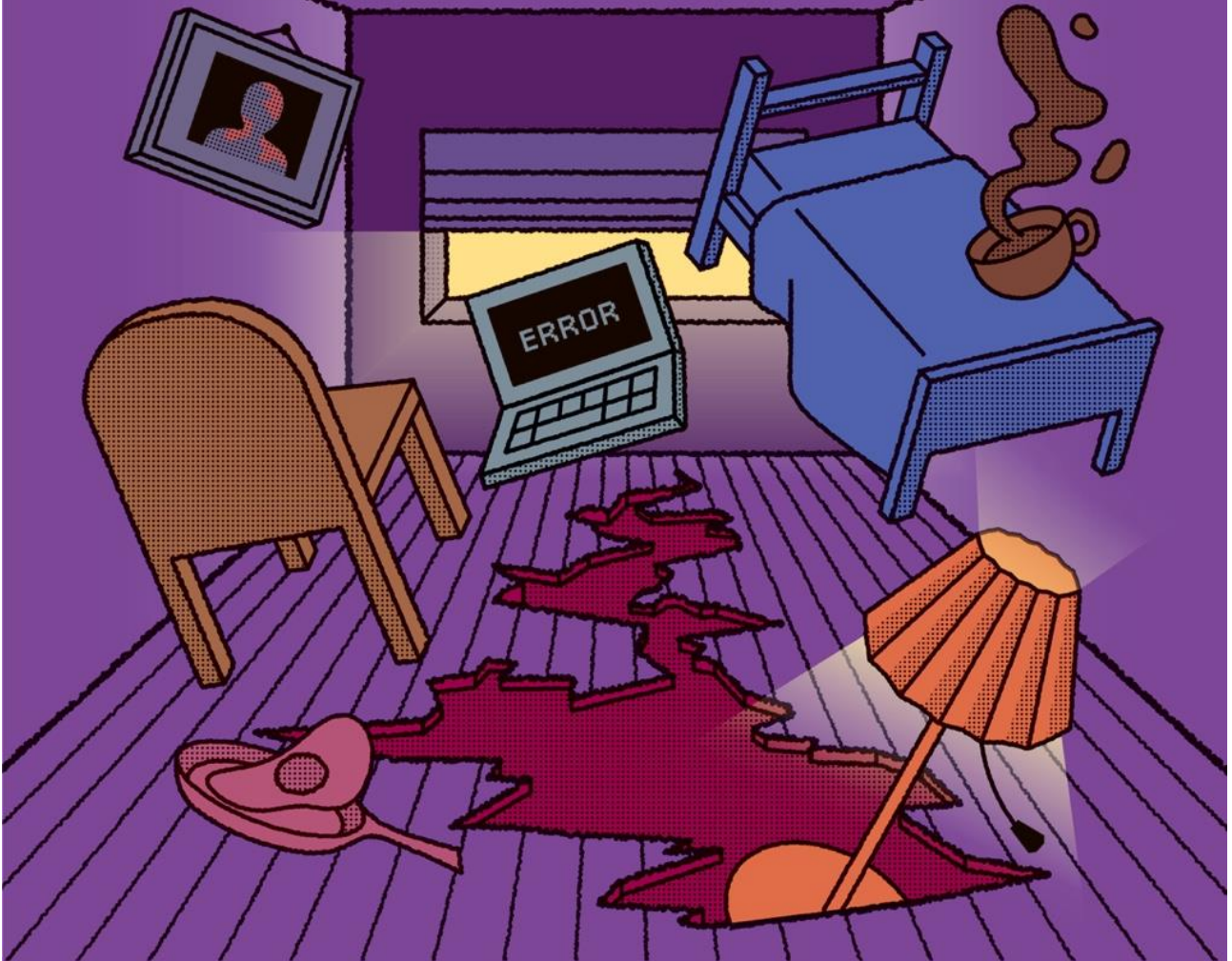
특히 소아 아토피피부염 환자의 70%는 아토피피부염으로 인해 수면부족을 경험하며, 이는 인지신경 수행능력(neurocognitive performance)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. 또한 소아 아토피피부염 환자의 20%는 질환으로 인해서 학교 결석을 경험하며, 86%의 소아 환자는 일상적인 활동을 회피하고, 50% 이상은 스스로가 행복하지 않거나 우울하다고 느낀다. 성인 아토피피부염의 약 85%는 어린 시절부터 발병하며, 중증의 경우 성인이 될 때까지 재발 및 지속된다. 소아에서 발생한 아토피피부염이 사춘기 이후까지 지속되는 경우는 40~60%에 달한다.

사노피(Sanofi)에 대하여

사노피는 '인류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과학적 기적을 추구한다'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입니다. 저희는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며 의료 현장(practice of medicine)에 혁신을 가져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 사노피는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을 중시해 두고,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치료 옵션과 생명을 구하는 백신을 공급합니다.

2023 아토피피부염 인식개선 캠페인

나의 홈집



가쁜 몸에 새겨진 집, 밥, 잠의 기록

2023 09.14 (Thu) - 09.17 (Sun)
AM 10:30 ~ PM 8:30

sanofi

연남동 카페 스콘

